



고창 성승면 작은목욕탕 운영위 개최 · 12일부터 개장

고창군 성승면은 지난 5일 작은목욕탕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목욕탕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 7명이 참석하여 개장을 위한 심의와 다양한 작은 목욕탕 운영을 위한 개선점을 논의했다. 당초 7~8월에는 하절기 목욕탕 이용자 감소 및 휴장기간 동안 목욕탕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을 쉬고 9월부터 개장하기로 했으나 성승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장을 앞당겼다. 특히 성승면 작은목욕탕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도에는 8천명 이상이 성승면 작은 목욕탕을 이용했다. 오는 2024년에는 1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미숙 성승면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휴장기간 동안 시설점검 및 보수를 완료했으니 자주 애용해달라"며 "작은목욕탕 운영을 위한 건의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교생 30여명 해군함정 '고창함' 견학

고창군은 관내 고교생 30여명이 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자매결연기관 해군함정인 고창함을 견학했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이 영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창군의 자매결연기관이자 고창의 지역명사로 탄생한 고창함을 방문하여 자매결연도시 바로알기 일환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견학을 시작으로 군항 차상 견학, 고창함 승선 체험, 잠수함 역사관 견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용선 고창함장은 해군함정의 기능과 역할의 설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이번 견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동통동, 1일1가구 소통행정 통한 밀반찬 나눔

남원시 동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오선자, 민간위원장 서덕교)는 지난 8일, 1일1가구 소통행정을 통한 가정방문에서 발굴한 결식우려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 17가구를 대상으로 밀반찬 전달과 폭염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부를 살폈다. 찬찬한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협약을 통해 매월 정기기부자 130명125만원의 후원금과 착한가게 18개소 54만원을 기탁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밀반찬 후원을 받은 고령의 어르신 한 분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입맛이 없었는데,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받으니 너무 고맙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냈다. 소선자 동통동장은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을 통해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개인택시조합, 장학금 150만원 기탁

무주군은 8일 무주개인택시조합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무주개인택시조합 최중길 조합장은 "조합원들 모두가 아빠의 마음"이라며 "정성으로 모은 장학금이 학생들의 현재 학업과 미래 꿈을 지원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도에 설립된 무주개인택시조합은 지역 내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수 종사자 3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주반딧불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교통통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무주군 생활안전 명예 요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드론축구장에 튀르키예가 왔다’

튀르키예 드론축구협회, 선수 15명 송동 드론축구장서 전지훈련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8월 8일 튀르키예 드론축구협회 선수 15명이 남원시 송동 드론축구장에서 하루 동안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튀르키예 전지훈련은 국제드론축구연맹과 대한드론축구협회의 주최·주관으로 송동 드론축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후 남원 관광부원관 등 일정을 소화하였다. 튀르키예 드론축구협회의 감독 야사르 감독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남원 송동 드론축구 전지훈련은 특별한 경험으로 드론축구 종주국가인 한국 환경에서 훈련함으로써 팀의 기술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드론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기존

송동 드론축구장 이용 활성화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 시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동 드론축구장은 2021년까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다 지난 6월 드론축구 연습 및 경기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으로 혁신적 스포츠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새로운 레저활동 장소로 활용 중에 있다. 또한 남원시는 송동 드론축구장을 비롯한 드론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찾아가는 드론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10월 3일 ~ 6일(3일)간 개최되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에 보다 확장된 범위의 드론 레이스 시범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농협 김제시지부, 김제쌀 소비촉진 업무협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7일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 김제시농축협조합운영협의회(회장 최승운)와 '쌀 소비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쌀 소비활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과 더불어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동시에 쌀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쌀 소비감소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실시된 범농협 운동으로, 농협은 범국민 아침밥먹기 생활화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 문화화산, 유관기관과 MOU 체결 등 쌀 소비촉진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원석 농협김제시지부장은 "농협은 지속적인 아침밥먹기 운동 캠페인을 통해 김제쌀 소비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 쌀산업 발전과 김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군-NH농협 순창군지부-농축협, 순창쌀 소비 협약식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순창군, 순창군의회, 순창관내 농축협과 함께 7일 순창군청에서 합동으로 '순창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및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쌀 과잉재고로 심각해진 농업·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으로 최영일 순창군수, 손준석 순창군의회 의장, 이병희 NH농협 순창군지부장, 김성철 순창농협, 양준섭 동계농협, 김순용 구립농협, 설득환 서순창농협, 순정축협 조익남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 쌀로 만든 떡으로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을 순창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순창 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식'을 통해 순창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순창군에서 생산된 쌀과 쌀 가공 제품을 각종 행사 등에서 적극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병희 지부장은 "쌀 가격 안정화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순창쌀 소비 촉진 및 아



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다"며 "순창군민 모두가 매일 1인당 50g의 쌀을 더 섭취하는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한다면, 건강증진은 물론 연간 493톤(경지면적 103ha 규모)의 쌀이 더 소비되어 쌀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순창=이왕형 기자



남원소방서, 폭염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도민 모두 쉬어가는 주간 운영에 따른 폭염안내 방송 및 폭염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가 유지되는 지금 온열질환은 특히 온도변화에 민감한 어린이와 노인에게 치명적이며, 어지러움,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폭염대응을 위하여 폭염 취약시간대에 13대의 펌프차를 동원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폭염관련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은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지금 야외 활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폭염에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으로 안전한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찾아가는 창의인재 드론 부트캠프' 개최

전북대학교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승희)은 찾아가는 창의인재 드론 부트캠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6월 전주고등학교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전주고 강당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 항공 드론 조종법을 익히고,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편집의 기초적인 기술 등 실생활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둘째날에는 드론경진대회를 통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4개 팀 12명의 학생에게 시상도 했다. 김승희 단장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항공·드론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주 인근의 중·고교와 지역민들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패키지 컨설팅 성료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7일 진행된산학협력단 패키지 컨설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부설기관인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산학협력단 비전 및 발전방향, △ 교육 및 취업, △ 연구개발 및 사업화, △ 산학협력단 인프라 등 4개 영역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8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과 2025년부터 진행되는 라이즈(RISE)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 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추진계획과 연계한 산학협력력 증강기 발전계획에 대해 사전 점검했다. 또 RISE사업의 핵심목표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고용생태계 구축 및 지역-대학 발전역량 확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3단계 산학협력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사업, 교육부) △전북 동농상생형 플러스사업(로컬JOB센터, 고용노동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커리어사업(전북특별자치도) △서천군취·창업지원사업(충청남도) 등을 운영했다. 조덕현 단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지역고용을 향상시키는 지방 소멸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꿈키움 진로 멘토링' 성료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7일 지평선학당에서 '꿈키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평선학당 출신 대학생 5명이 멘토로, 학생생 140여 명이 멘티로 참여했다. 멘토들은 자신들의 대학 생활과 진로 탐색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멘토로 참여한 한 학생은 "지도 학당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매우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이사장은 "지평선학당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당생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기전대 '구직스킬UP! 취업캠프' 운영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8~9일 이틀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재학생 26명을 대상으로 '구직스킬UP! 취업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업캠프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재학생 26명이 1박 2일 동안 △취업 트렌드 특강 △직무, 기업 분석 실습 △입사지원서 작성 특강 △팀워크 프로그램 △면접 전략 특강 및 롤플레이 △1:1 퍼스널컬러 진단을 통한 이미지메이킹 등을 배운다. 이를 통해 참여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또 구직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취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번 취업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혼자서 아닌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어울려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공유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